

한국 방산·보안 수출주간(KODAS) 결과 분석

'21.12.16(목), 방산교역실

2021 한국 방산·보안 수출주간(KODAS)* 결과를 분석하고,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함.

* KODAS: Korea Defense & Security Week 2021

□ KODAS 2021 개요

- 일자: '21. 11. 2.(화)~11. 5.(금) 4일간 1:1 수출 화상 상담회 진행
- 규모: 해외 바이어/에이전트 18개국 55개사, 국내기업 61개사 참여
※ KODAS 2020/2021 상담회 규모

구 분	KODAS 2020	KODAS 2021
규 모	▪ 바이어 : 20개국 49개사 ▪ 국내기업 : 60개사 ▪ 상담건수 : 147건	▪ 바이어 : 18개국 55개사 ▪ 국내기업 : 61개사 ▪ 상담건수 : 176건
특 징	▪ DX Korea 2020 연계 ▪ 코로나19 고려, 화상상담방식 진행	▪ 연초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려했으나, 코로나19 격화로 전면 온라인 시행

□ 상담회 결과 분석

- 상담결과: 총 176건 상담액 약 6억불, 계약추진액 57건 약 1억불
 - LIG 넥스원, 코오롱글로벌 등 방산 중견기업 참여 유도로 전년대비 약 10% 증가된 우수 바이어 유치(49개사 → 55개사)
 - 전년 대비 참여 국내기업 및 해외바이어 모두 증가하였으며, 상담건수 또한 약 20% 증가(147건 → 176건)
- 대륙별 해외바이어 상담 실적 결과
 - 참여국가 수 및 총 상담건수 기준 '중동' 지역이 가장 바이어 수요 많음
 - 전통적으로 국내 방산/보안 수출제품에 관심이 많은 국가는 개도국 위주임을 확인 가능

⇒ 중동/개도국 바이어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차년도 KODAS 추진 시 해당지역의 실제 성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

※ 대륙별 해외바이어 상담 건수

대륙	국가	상담건수
중동	사우디아라비아/오만/요르단/이집트/터키/파키스탄	78
중남미	멕시코/에콰도르/칠레	28
유럽	네덜란드/독일/세르비아	20
아프리카	남아공/에티오피아	17
동남아시아	말레이시아/베트남/인도네시아	16
서남아시아	인도	17

○ 방산/보안 분야별 상담 실적 결과

방산(Defense)						보안(Security)		
구분	상담건수	상담액(\$)	구분	상담건수	상담액(\$)	구분	상담건수	상담액(\$)
방호장비	39	50백만	해상&수중	20	1.3백만	소방안전	21	65백만
전기전자	33	52백만	광전자	20	44백만	영상보안	15	40백만
통신전자	29	750백만	항공기	16	0.1백만	출입통제	5	11백만
탄약&폭발물	23	6.1백만	화생방	11	6만	기타	21	72백만
군용 차량	22	55백만	기타	19	51백만			

* 중복 분야 포함

- (방산) 상담건수 기준 1)방호장비 → 2)전기전자 → 3)통신전자 순으로 많았으며, 상담액 기준 1)통신전자 → 2)군용차량 → 3)전기전자 순으로 가장 컸음

- (보안) 상담건수/상담액 기준 모두 '소방안전' 분야가 가장 컸음

⇒ 국내제품 중 바이어 수요가 큰 방호장비(탄약, 방탄복 등), 전자장비(도청탐지장치, 열상카메라 등), 소방안전(소화기, 불꽃감지기 등)분야 상담매칭 정교화 추진

○ 성약 분석: 계약 가능성 '매우높음' 건 총 29건(총액 약 25백만불)

- 29건은 바이어와 국내기업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컨택포인트를 양사에 공유 완료. 분기 1회 이상 중점 추적관리 예정

* 계약가능성 기준은 추가 상담희망 여부, 바이어의 구매 의사, 계약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총 5단계(매우낮음/낮음/보통/높음/매우높음)로 분류

※ 계약가능성 '매우높음' 29건 현황

산업 분야		계약추진액(\$)/건	산업 분야		계약추진액(\$)/건
방 산	방호장비	0.6백만 / 8건	방 산	군용차량	규모 미정 / 3건
	광전자	5백만 / 6건		항공기	규모 미정 / 3건
	탄약&폭발물	7만 / 6건		화생방	규모 미정 / 1건
	통신전자	2.1백만 / 6건	보 안	소방안전	4만 / 2건
	전기전자	5백만 / 3건		영상보안	5백만 / 2건
	해상&수중	규모 미정 / 3건		출입통제	4만 / 1건

* 한 제품 내 중복 분야 포함, 계약추진액 공개 불가 항목 제외

- (방산) 광전자, 전기전자, 통신전자 등 '전자장비' 계약규모 압도적으로 큼
- (보안) 타 분야 대비 '영상보안' 계약규모가 월등히 큼

⇒ 실제 계약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산센터·무역관 상호 추적관리 (분기 1회) 철저. 타 해외마케팅 사업(사절단, 전시회 등) 연계 유도